



다함께

모여/ Ice Break(마음열기)

나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락즐거게

찬송/ 새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함께 읽을 성경말씀



사도행전 4:32-5:11 (신약 194쪽)

방금

읽은 본문으로 / 은혜와 삶 나누기

은혜와 진리는 서로 공존하기가 힘듭니다. 진리를 강조하면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가 강조되면 진리가 훼손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힘입은 초대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1. 은혜가 충만한 부활 공동체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습니다(32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혁명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 소유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자발적으로 나눕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능력도 충만했습니다.

2)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고(33절),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의 길도 즐겁게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삶을 보는 관점과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 평등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절대빈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복지제도도 없던 그 시대에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고, 가난한 사람들도 힘에 지나도록 헌신합니다. 그 결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신명기 15장 말씀이 성취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사역이 계속 확장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장 중요한 행복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행복은, 나눔과 은혜가 주는 행복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은혜와 나눔은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지만, 물질적인 행복은 사회를 더 취약하고 경쟁적으로 만듭니다. 은혜와 나눔은 부활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바나바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실천한 나눔과 은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원래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던 레위족인 바나바는, 복음을 받은 후 자신의 원래 소명을 회복하고 진정한 “위로의 아들”이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이 아닌, 부활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복음에 더욱 충실함으로, 은혜와 나눔의 기쁨이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진리가 충만한 새창조의 공동체

교회는 진리가 충만한 새창조의 공동체입니다. 바나바의 행위가 초대교회에서 칭송을 받자 야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삽비라 역시 같은 거짓말을 하고 죽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거짓말이 잘못된 건 맞지만, 죽을 죄는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화개할 기회조차 안 주셨을까?’

이 사건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죄로 멸망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갓 탄생한 초대교회가 거짓으로 오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아닌, 다시 옛 아담의 죄를 복제하고 재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박해와 위협보다 내부의 거짓과 위선입니다. 거짓을 사랑과 은혜로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도록 힘쓰고(엡4:15), 거짓은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 책망할 때(엡 5:11-13), 교회의 교회됨이 유지됩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결코 은혜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이 밝히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나눔포인트

1. 성령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32-35)

2. 물질적 소유보다 은혜의 나눔이 더 큰 기쁨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쁨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더 풍성할 수 있을까요?

3.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적인 미혹이 있었습니까? (5:1-2 참고, 창 3장)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엄중하게 다루셨습니까? (4:36-37)

4.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동시에 진리도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지 나눠 보세요.



모두를

위한 기도 / 합심기도

-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되게 하소서
- 【다락방별 기도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와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임재하신

성령님 안에서 / 모임 마무리

- 교회 광고

1.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4일)부터 30일(토요일)까지 새벽기도회(5:30)와 이침기도회(9:30)로 모여 기도합니다(장소: 본당).
2. 이번 주부터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다락방 심방이 시작됩니다(금/토 오전, 오후(저녁)).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찬송 / 새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 주기도문